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 6화도 터졌다! 첫 주 대비 시청량 748% 폭등! '팀 손테일 VS 팀 파리 금손' 전원 탈락의 운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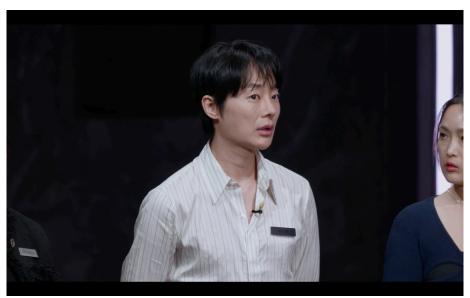
2025.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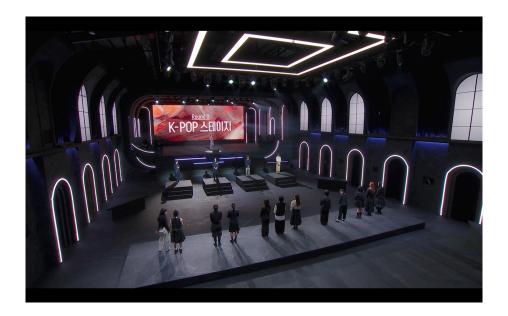
2025. 10. 20. -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이 지난 17일(금) 공개한 6화에서 첫 팀전 미션을 통해 K-뷰티와 K-POP이 만난 역대급 무대를 탄생시키며 또 한 번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앞서 1:1 데스매치에서 깜짝 추가 합격자까지 총 16명의 생존 자가 확정된 가운데, 이번 회차에서는 팀전 미션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첫 번째 미션은 K-POP 아이돌 그룹 투어스(TWS)의 'Lucky To Be Loved' 무대 메이크업으로, 참가자들은 메이크업을 넘어 무대의 서사와 연출까지 완성해내며, K-뷰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팀 손테일(손테일, 네버데드퀸, 뷰티 왕언니, 로열 패밀리)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투어스(TWS)의 청량함을 시그니처 컬러인 '스파클링 블루'로 표현했다. 특히 **네버데드퀸**의 분장 요소 능력을 활용해 팬덤명 '42'를 곳곳에 포인트로 녹여내며, 팬송 'Lucky To Be Loved'의 의미를 극대화한 메이크업을 완성했다. 패턴과 컬러를 최소화한 의상에 끈 디테일을 더해, 안무 동작이 하나의 음률처럼 흐르도록 연출한 스타일링도 눈길을 끌었다. 멤버 개개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팬들과의 연결성을 섬세하게 표현한 무대는 팬심은 물론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팀 파리 금손(파리 금손, 명품 컬렉터, 스웨그 메이커, 오 돌체비타) <블루밍 이모션>

소년과 어른의 경계에서 요동치는 감정들을 메이크업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꽃피는 청춘의 찬란함을 빛나는 크리스털 파츠로 연출했다. 'Lucky To Be Loved'의 손 동작 안무를 강조하기 위해 얼굴뿐 아니라 손가락, 귀 등 곳곳에 파츠를 부착해, 무대 조명 아래 사방이 반짝이는 바디 메이크업도 선보였다. 미니멀한 무드에 프릴과 꽃 디테일로 포인트를 더해, 로맨틱함과 강인함이 공존

하는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화려한 글리터와 바디 메이크업은 무대 전반에 감정을 입히며, '팀 파리 금손'만의 독창성을 강렬하게 드러냈다.

무대에 선 투어스(TWS) 멤버들은 "저희의 곡을 몇 번이고 돌려 보시면서 분석해 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주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노력이 깃든 메이크업을 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느꼈다"며 참가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해 더욱 뜻깊은 장면을 남겼다. 두 팀의 무대가 끝난 뒤 진행된 팬 투표에서는 단 16표 차이의 초박빙 결과가 나왔다. 최종 승자는 심사위원단 투표까지 더해질 가운데, 과연 어느 팀이 승자가 될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 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되며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